

청소년의 이성교제 여부 변화와 관련 요인

정유진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Changes in Romantic Relationship Engagement of Korean Adolescents

Yu-Jin Jeong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연령에 따른 이성교제 여부 변화와 이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 및 가족과 학교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원자료에서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자료 제 3차(2012년)~제 5차(2014년) 자료의 일부분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수는 총 1,961명이었다. 패널로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남자 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낮은 청소년에 비해 이성교제를 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이성형제 유무, 가구 소득과 같은 가족 특성은 연구 대상자의 이성교제 참여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달리 학교 특성은 이성교제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이성교제를 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학업과 학교 규칙 적용 정도는 이성교제 확률을 감소시켰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교우와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그 확률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이성교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본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Drawing from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romantic relationship engagement among Korean adolescents across the country over a three-year period and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 familial, and school characteristics on the experience. Panel logit analysis showed that Korean adolescents were more likely to be engaged in a romantic relationship as they became older. Male adolescents were more likely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to have a romantic partner. The higher scores of self-esteem increased the likelihood of adolescents to be in a romantic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having an opposite-sex sibling, the level of parental warmth, and annual household income did not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chance of romantic relationship engagement. On the contrary, all school-related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related to the odds of being in a romantic relationship. Going to a sex-mixed school increased the odds, whereas academic adjustment and conformity to school rules decreased the likelihood. In addition, th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schoolmates and teachers were associated with a higher chance of having a romantic partner.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also suggested.

Keywords: Ecological System Perspective, Korean Adolescents,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KCYPs), Panel Logit Analysis, Romantic Relationship Engagement

본 논문은 2013년도 전북대학교 신입교수지원비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Yu-Jin Jeong(Chonbuk National Univ.)

Tel: +82-63-270-3958 email: yujin.jeong@jbnu.ac.kr

Received December 27, 2016

Revised (1st January 16, 2017, 2nd January 18, 2017)

Accepted February 3,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7

1. 서론

이성과의 관계 형성은 청소년기 주요한 사회적 변화 중 하나이다. 학령전기부터 학동기까지 아동들은 주로 동성 집단 내에서 사회화가 되는 반면, 청소년기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이성 또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1]. 또한 우리나라 남녀학생 중 약 92%가 이성을 좋아해본 적이 있다고 한 점을 볼 때[2], 이성과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삶에 매우 주요한 영역이다. 이성 관계를 통해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키며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확인한다. 또한 이성과의 교제는 이성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성과 잘 지낼 수 있는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3-4]. 따라서 이후 성인기에 건전한 이성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1999년 남녀공학 확대 정책 실시 이후 일반계 고교의 남녀공학 비율의 꾸준한 증가는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더 많은 이성 또래와의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성교제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5].

이러한 이성교제의 발달적·맥락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내에서는 이성교제 실태조사[5-7]와 청소년들의 성행동이나 성에 대한 태도 또는 경험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2]. 또한 이성교제 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환경적 특성을 비교한 연구 결과들도 간간히 보고되어 왔다[5][8-10] 최근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이성교제에 대한 지각의 차이와 부모-자녀 갈등의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11].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최근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어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경험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이성친구와의 관계는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더 빈번해지고, 발달적 측면에도 매우 주요한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이성교제 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단적 자료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성교제 경험 실태와 이에 대한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생태체계적 접근을 이론적 틀로 삼았다[12].

생태체계적 접근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자신의 특성에 따라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다[12]. 또한 다양한 수준의 맥락들이(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시간 체계(chronosystem) 또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맥락 중 하나이다. 시간 체계는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환경이 시간에 따라 변화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는 개인의 발달과 함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으로 인한 학교환경의 변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 및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환경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연령 변화에 따른 이성교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기존의 이성교제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은 횡단적 자료만을 사용하여 집단 비교를 통해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 이성교제를 한다는 결과[13,17]를 보고해 왔다. 따라서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의 연령 증가에 따른 이성교제 여부 변화에 대한 실제적 탐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령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 실태 파악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인 생태체계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이성교제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맥락 중 개인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장 근접한 환경으로 행동 및 발달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2.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 이성교제 경험 및 연령에 따른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

국내에서 발표된 청소년 이성교제 경험 관련 연구들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을 42%에서 63%까지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주시와 청원군에 위치한 고등학교 2학년생들의 이성교제에 대해 살펴본 연구[9]에서는 이성친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42%였다. 이와 유사하게 경남 통영과 거제에 거주하

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원중의 연구[5]에서는 전체 연구 참여자 중 약 47%가 이성교제 경험을 보고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0][12-13]. 한편 군산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중 약 63%가 이성교제를 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7].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일한 집단을 추적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이성교제 변화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급급에 따른 이성교제 경험을 횡단적으로 비교한 기존 연구 결과들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영숙의 연구[13]에서 중학생의 16.6%, 고등학생의 10.8%가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실제 경험에 관해서는 중학생의 36.7%, 고등학생의 63.4%가 이성교제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도 이성교제에 필요성에 관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의 63.1%, 고 1, 2 학생의 약 7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실제 경험에 있어서도 42.2%, 53.9%, 60.4%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성과의 관계가 지지를 제공하고 친밀감의 주요 목표가 되어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성교제의 기회가 넓어짐을 부분적으로 시사한다[13, 17]. 그러나 횡단적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변화가 아닌 집단간 차이에 의해 기인할 것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이성교제 경험, 즉 현재 상태 뿐 아니라 이전에 이성교제를 해 본적이 있는 것까지를 함께 질문함으로써 개인의 연령 변화에 따른 이성교제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단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탐색이 필요하다.

2.2 이성교제 경험 관련 변인

2.2.1 개인 특성

이성교제 경험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 신체적 특성 및 심리·정서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성별이 이성교제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조송희는[18] 여학생의 57.6%, 남학생의 47.8%가 이명진과 곽종형의 연구[10]

에서는 여학생의 63.6%, 남학생의 50.3%가 이성교제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여 여학생이 이성교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이성교제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으며,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다른 연구결과와[11]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인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한 예로 김태근의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 중 61.6%, 여학생의 57.5%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12]. 또한 김원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학생의 43.9%, 여학생의 50.5%가 이성교제 경험이 없음을 보고하였다[5]. 이처럼 남학생의 경험이 더 많음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 결과는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남성들은 높은 이성 또는 성 행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한 이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데 반해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18]. 즉, 남자 청소년의 경우 이성교제에 대해 실제적으로 적극적이거나 또는 이성교제 경험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이성교제를 더 경계하거나[6], 실제 경험을 축소시켜 보고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이성교제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특성으로 몽정 또는 초경의 시작 시기를 들 수 있다. 대체적으로 초경과 몽정이 시작하는 시점을 사춘기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14]. 개인에 따라 사춘기 시작 시점에는 차이를 보이는데, 한 예로 박미정과 동료들은[19]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를 여자는 11.3±1.3세, 남자는 12.1±1.5세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성 성숙도의 차이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인 적응 및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대체적으로 남아의 경우 조숙이 만숙에 비해 자아상 및 대처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15].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성적 성숙도의 영향이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다른 또래와 비슷한 시기에 성적 성숙을 경험할 경우 만숙 또는 조숙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15]. 그러나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 사춘기를 더 빨리 경험 여자 청소년의 경우 더 많은 인기가 있으므로 조숙이 이성교제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으로도 가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성교제와 관련된 요인으로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대체적으로 청소년기,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자아 존중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성교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3]. 즉 이성과의 교제를 통해 정신적 안정감과 함께 자신의 여성 또는 남성으로의 매력을 확인하고 또래 내에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3][14]. 그러나 이러한 두 변인 간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들과 이론들에서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이성교제를 대인관계의 하나로 생각해 보았을 때 개인의 특성인 자아존중감이 이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자아존중감과 이성교제 경험간 관계의 방향성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2.2.2 가족 관련 특성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족은 영향력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중요한 미시체계 중 하나로 꼽힌다[12]. 먼저,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에게 매우 주요한 사회적 관계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적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이성교제도 사회적 관계의 하나이므로 부모의 애정적 양육 행동은 청소년의 이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모 양육태도가 이성교제 경험에 미치는 이유는 애착이론과 사회화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애착이론에서는 인생 초기 주 양육자와의 경험은 이후 친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대한 내적 모델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이후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더 건강한 이성 관계를 발달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행동해야 하는가를 학습하여 이성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성에 대한 배려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이성친구의 조건이므로[22]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욕구가 강하므로[9][23], 이성교제의 가능성을 더 증가시킨다는 주

장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이성교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가족 내에서 형제자매와의 관계 또한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긴밀한 관련이 있다. 형제자매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아동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가족규모의 축소로 형제자매의 존재 및 관계는 청소년기를 포함 아동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24-25]. 특히 이성형제와 함께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신과 성별이 다른 또래를 관찰하고 상호작용할 기회를 제공한다[25]. 따라서 이성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이성과의 상호작용에 더 자신감을 보일 수 있고, 그 결과 이성교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Doughty와 동료들은 종단연구를 통해 이성형제의 존재가 청소년 및 초기 청년들이 보고한 이성과의 관계에서의 자신감 변화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25].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가족원의 특성 뿐 아니라 가구 소득 또한 이성교제 경험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영숙의 연구에서 중산층 청소년이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다고 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는 중산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저소득층이나 또는 상위계층에 속하는 또래들에 비해 이성교제의 제약 요소가 낮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2.2.3 학교 관련 특성

청소년에게 주요한 미시체계로 가족과 함께 학교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이전 아동기에 비해 개인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므로 학교가 미치는 영향은 증가한다. 특히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취학률은 중학교 96.3%, 고등학교 93.5%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재학 중이므로[26], 학교가 한국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학교관련 변인 중 구조적 측면인 남녀공학 재학 여부와 이성교제 경험과의 관계는 배우자 선택이론 중 여과망 이론과 청소년기 또래관계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과망 이론에 따르면 이성교제의 대상은 가장 먼저 지역적 근접성의 여과망을 통해 제한된다. 즉, 모든 가능한 이성교제 대상 중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 만남과

상호작용이 많은 사람들로 상대가 한정된다[24]. 그러므로 남녀공학에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활동 범위 내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이성 또래들이 많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이성교제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이성과 동성이 함께 있는 또래 집단에 속할 경우 이성과의 낭만적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다[12]. 실제로 이성교제의 계기에 대해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같은 학교 동창이어서”를 선택하였고, 이성 친구를 사귀 경험 없이 연구 대상자 중 남녀학교와 여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5].

다음으로 학교관련 변인 중 생활적인 측면으로 학업 적응과 학교규칙 적응이 이성교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선행연구들은 학업에 대한 관심 및 성적이 이성관계의 경험과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학교 성적이 낮은 것은 학업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을 의미하므로, 공부보다는 이성교제와 같은 학업 외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15].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는 학업 면에서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성적 유지 또는 향상에 대한 심리적 압력을 더 크게 느끼고 이성교제가 학업에 방해된다고 여겨 이성교제를 덜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대전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11] 학교성적이 하위인 학생이 상위인 학생보다 이성교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영숙의 연구에서도 상위권 또는 중위권에 속하는 학생에 비해 하위권에 속하는 학생이 이성교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3]. 또한 학교생활 관련 변인으로 학교규칙 준수 성향이 이성교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 학교 현실을 고려하여 그 관련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남녀공학 기숙사 교교의 80%가 이성교제와 관련된 제재 조항을 두고 있다[27]. 따라서 많은 청소년 학생들에게 이성교제는 학교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더불어 학교에서의 대인관계인 교우와 교사와의 관계 적응이 이성교제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 이성교제는 주로 또래들의 연결망에 의해 형성되며 또래들과 관계에서 기술과 행동들은 이성과의 관계에도 전이되어 영향을 미치므로[28], 교우

와의 관계에 원만하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와의 관계 또한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교사와의 인간관계가 상위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또는 하위 집단에 속한 학생들에 비해 이성교제 경험이 더 많음을 보고한 연구가 있는 반면,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 때 학교생활 전반에 흥미를 잃게 되어 적응도가 감소되어[6] 이성교제 등에 관심을 갖게 될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에서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이성교제 여부의 변화를 살펴보고 개인 및 미시적 환경 특성이 이성교제 유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우리나라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이성교제 유무 변화는 어떠한가?
- 2) 우리나라 청소년의 이성교제 유무에 개인특성(성별, 자아존중감, 사춘기 시작여부)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 우리나라 청소년의 이성교제 유무에 가족 특성(이성형제 유무,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가구연간소득)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4) 우리나라 청소년의 이성교제 유무에 학교 특성(남녀공학재학, 학업 적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연구방법

3.1 연구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의 중1 코호트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KCYPS는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2010년에 표집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세 개의 코호트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 7년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7]. 이 패널 자료 중 본 연구에서는 중 1 코호트의 제 3차 년도(2012년)에서 제 5차 년도

(2014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1, 2차 년도 자료는 본 연구의 가장 주요한 변인인 이성교제 경험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

원자료에서 본 연구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선정기준을 적용하였다. 먼저 사용된 자료 중 제 3차 년도에서 제 5차 년도까지의 세 조사시점에 모두 참여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교의 특성 및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이 분석에 포함되므로 제 4, 5차 년도 조사에서 학교 재학 여부에 대해 미응답하거나 혹은 학교에 다니지 않은 39명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961명이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3.2 연구변인

3.2.1 종속변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서의 이성교제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3차~5차년까지 공통적으로 조사에 포함된 문항인 “학생은 현재 메시지, 이메일, 선물을 주고받거나 함께 어울려 다니는 등 친하게 지내며 서로 좋아하며 사귀는 이성친구(나와 성별이 다른 친구)가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을(1=있다, 2=없다)을 더미변인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중학교 3학년 재학 시점에서는 연구 대상 학생 중 19%,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점에서는 각각 20%와 22%의 학생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기간 중 한번이라도 이성친구가 있었던 대상자, 즉 3년 동안 이성교제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은 약 39.4%(n=775)이었다.

3.2.2 독립변인

(1) 개인 특성 변인

분석에 포함된 개인특성은 청소년의 성별, 사춘기 시작 여부, 자아존중감이다. 먼저, 성별은 3차 자료에서 추출하여 더미변인으로 변환(0=남, 1=여)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 중 남녀 학생의 비율은 각각 52%와 48%였다.

둘째, 각 조사시점에서의 사춘기 시작 여부는 몽정 또는 초경 시작 여부(0=아직 시작하지 않음, 1=시작함)를 의미한다. 5차 년도 자료 중 몽정 또는 초경의 시기(1=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2=초등학교 1~3학년, 3=초등학교 4학년, 4=초등학교 5학년, 5=초등학교 6학년, 6=중학교 1학년, 7=중학교 2학년, 8=중학교 3학년, 9=고등학교

1학년, 10=고등학교 2학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하여 3, 4, 5차 년도의 사춘기 시작 여부 변인을 생성하였다. 예를 들어, 몽정 또는 초경의 시기가 3차 년도인 중 3시기 이전이라고 답변한 경우, 그 조사 시점의 성적 성숙도에 0을, 중 3 이후의 시기로 답변한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였다. 각 조사 시점에서 아직 사춘기가 시작하지 않은 학생은 각각 13.4%, 10.4%, 9.9%였다.

셋째, 청소년 개인의 자아존중감 관련 문항은 제 3차와 5차 조사에만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은 4-Likert 척도(1=매우 그렇다~4=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 하여 높은 점수가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는 10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서의 평균값은 각각 2.66과 2.60이였으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 는 3, 5차 조사에서 각각 0.82와 0.86이었다.

(2) 가족 특성 변인

본 연구에서 가족 특성 변인으로는 이성형제 유무 및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가구 소득이 포함되었다. 먼저 이성형제 유무는 더미변인으로(0=없다, 1=있다) 원자료에서 응답자의 성별과 3차 자료의 형제자매 유무(1=있다, 2=없다) 및 형제자매 수에 대한 질문, 즉 각각 형/오빠, 누나/언니, 여동생, 남동생의 수에 대한 4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없다고 답변한 경우와 형제자매는 있으나 자신과 동성의 형제만 있다고 응답한, 즉 이성형제가 없는 응답자는 45.3%를, 이성 형제가 1명이상 있는 경우는 53.7%를 차지하였다.

제3~5차까지의 자료 중 제 4차 년도 자료에만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관련 문항에 대한 답변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인(non-time varying variable)이다.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매우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높은 점수가 높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 태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역채점한 후, 본 연구에서는 4개 문

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은 2.99였으며 내적 신뢰도 Cronbach $\alpha = .80$ 이었다.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은 원자료에서 만원 단위로 표기된 연소득의 제공근을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2012년도~2014년도까지 조사 대상자의 가구 소득의 중앙값은 4,000만원~4,200만원이었다.

(3) 학교 특성 변인

학교와 관련된 변인은 남녀공학 재학 여부를 투입하였다. 학교 관련 변인은 3~5차 자료가 모두 분석에 포함되었다. 먼저 남녀공학 재학 여부(0=남학교 또는 여학교, 1=남녀공학)는 제 3차 년도~제 5차 년도의 자료 중 남녀공학여부와 남녀합반 여부를 묻는 질문의 답변을 사용하여 재구성하였다. 남녀공학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조사 대상자의 77.6%이었으나 고등학교에 진학 후에는 그 비율이 약 53%로 감소하였다.

남녀공학 재학 여부 이외 학교 특성 관련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업 적응, 학교규칙 적응, 교우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하였다. 이 네 가지의 변인은 각각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Likert 척도(1=매우 그렇다~4=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부적응 행동(예.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을 나타내는 문항을 제외한 문항의 답변들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점수가 높도록 하였다. 네 변인들 척도의 평균값은 2.75~3.15 범위에, 내적 신뢰도 Cronbach α 는 .67~.84 범위에 있었다.

3.3 분석방법

위의 연구 변인 및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성교제 여부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로지분석(panel logi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이분화된 종속변수 분석에 사용되므로 본 연구주제인 연령에 따른 이성친구 유무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패널로지분석은 확률상수와 개인수준의 독립변인들 간 독립성 유무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과 확률상수모형(random-intercept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29]. 고정상수모형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time-varying variables)의 변화가 종속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볼 수 있다[29].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개인 간 변인, 즉 성별,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이성형제 유무가 주요한 독립변인들이므로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 제시되는 추정 계수는 개인 간 효과모형과 개인 내 효과 모형 추정계수의 가중평균치로 독립변수의 효과가 개인 간 차이와 개인 내 변화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29]. 이상의 모든 분석은 Stata13[30]에서 이루어졌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69)

	Mean	SD	Possible Range
Romantic Relationship Engagement			
Grade 9	0.19	0.39	0, 1
Grade 10	0.20	0.40	0, 1
Grade 11	0.22	0.41	0, 1
Female	0.48	0.50	
Pubertal onset			
Grade 9	0.87	0.34	0, 1
Grade 10	0.90	0.31	0, 1
Grade 11	0.90	0.30	0, 1
Self-esteem			
Grade 9	2.66	0.30	1~4
Grade 11	2.60	0.22	1.6~4
Having an opposite-sex sibling	.54	.50	0, 1
Parental warmth			
Annual household income ^a	2.99	0.55	1~4
Grade 9	65.55	18.34	0~200
Grade 10	65.86	18.00	13.42~200
Grade 11	66.00	17.68	10.00~141.42
Attending in a sex-mixed school			
Grade 9	0.78	0.42	1~4
Grade 10	0.52	0.50	1~4
Grade 11	0.53	0.50	1~4
Academic adjustment			
Grade 9	2.74	0.52	1~4
Grade 10	2.79	0.49	1~4
Grade 11	2.75	0.50	1~4
Conformity to school Rules			
Grade 9	2.87	0.53	1~4
Grade 10	2.91	0.50	1~4
Grade 11	2.99	0.47	1~4
Relationship with Schoolmates			
Grade 9	3.12	0.45	1~4
Grade 10	3.14	0.42	1~4
Grade 11	3.15	0.39	1~4
Relationship with teachers			
Grade 9	2.88	0.62	1~4
Grade 10	2.88	0.58	1~4
Grade 11	2.90	0.57	1~4

^a Rooted values

4. 연구결과

4.1 연령에 따른 이성교제 여부의 변화

청소년의 연령 증가에 따른 이성교제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확률상수도형 패널로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 모델 1에 제시되어 있다.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b=.11, p<.05$). 즉 해마다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은 12% 증가하였다. 다른 변인들을 투입한 Model2에서도 연령의 유의한 효과는 유지되었다 ($b=.22, p<.01$).

Table 2. Results of Panel Logit Analysis

	Model 1			Model 2		
	B	OR	SE	B	OR	SE
Age	.11*	1.12	.05	.22***	1.25	.06
Female				-.22†	.81	.10
Pubertal onset				.27	1.31	.26
Self-esteem				.88***	2.42	.51
Having an opposite-sex sibling				-.15	.86	.10
Parental warmth				.03	1.03	.12
Annual household income				-.00	1.00	.00
Attending in a sex-mixed school				.45***	1.56	.19
Academic adjustment				-.44**	.64	.08
Confirmity to school Rules				-.70***	.50	.06
Relationship with Schoolmates				.76***	2.13	.33
Relationship with teachers				.30**	1.35	.15
Constant				-4.59***		.78
/Insig2u	1.07	.10	.77			.17
sigma_u	1.71	.09	1.47			.13
rho	.47	.03	.40			.04

4.2 이성교제 여부 관련 변인

먼저 청소년의 이성교제 여부와 관련된 개인 특성 변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한계가 있는 수준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이 낮았다 ($b=-.22, p<.01$). 즉, 여자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할 확률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19% 낮았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88, p<.001$). 즉 자아존중

감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이성교제를 할 확률은 142%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 특성 중 사춘기 시작여부는 이성교제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가족 특성 변인인 부모의 애정적 양육 태도, 이성형제 유무, 가구 연간 소득은 모두 청소년의 이성교제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 포함된 남녀공학 재학 여부 및 학교 관련 변인들은 모두 청소년의 이성교제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이 남녀공학에 재학할 경우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b=.45, p<.001$). 즉, 남녀공학에 재학하는 청소년의 경우 남학교 또는 여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 비해 이성교제를 할 확률이 56%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교관련 특성 중 학업 적응($b=-.44, p<.01$)과 학교 규칙 적응($b=-.70, p<.001$)은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업 적응 점수와 학교 규칙 적응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이성교제를 할 확률은 각각 39%, 50% 감소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교우($b=.76, p<.001$) 및 교사와의 관계($b=.30, p<.01$)는 이성교제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즉, 교우와의 관계 점수가 1점 향상될 때 이성교제를 할 확률은 113%가 증가되었고 교사와의 관계 점수가 1점 향상될 때 그 확률은 35% 증가하였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발달적 의의와 중요성 및 우리나라의 교육적 환경 변화, 그리고 선행연구의 제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생태학적 접근법을 그 이론적 틀로 삼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연령에 따른 이성교제 여부 변화와 이에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자료 중, 중 1 코호트의 제 3차년도~제 5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원자료가 비교적 최근 자료이며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모든 지역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경험 실태와 관련 요인들에 대한 한층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결과와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이 미미하게나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령 증가에 따른 이성교제 확률의 증가는 기존의 횡단적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적으로 이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로 이성교제의 기회가 높아지므로 이성교제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유의수준이 0.1 미만으로 한계적 수준에서 연령에 따른 이성교제 유무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성교제 여부 및 경험에 대한 결과와 기존 연구 결과와의 차이점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각 시점에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19%~22%이었고 이 기간 동안 이성교제를 해 본 청소년의 비율이 40%에 다소 못 미쳐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42%~63%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이성 친구 유무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어 그 이전 시기의 이성교제 경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조사 시점까지 경험한 모든 이성교제에 대해 질문한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낮은 것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성교제 경험을 한 청소년 비율에서의 차이는 질문하는 방식이 상이한 것에서도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성교제 여부를 묻기 위해 “당신은 현재 이성과 사귀거나 과거에 사귀어 본 일이 있습니까?”[14] 또는 “이성 친구를 현재 사귀고 있나요?”[18]와 같은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낭만적 관계에 있는 이성과의 관계 뿐 아니라 우정 관계에 있는 단순히 성별이 다른 친구와의 교제를 물어보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는 낭만적 이성교제 시할 수 있는 행동(메시지, 이메일, 선물을 주고 받거나 함께 어울려 다니기)과 느낄 수 있는 감정(친하게 지내기, 서로 좋아하기)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질문에 비해 독점적인 낭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성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낮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개인 특성 중 성별과 자아존중감이 이성교제 여부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자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10][18] 결과와 상반되나 김원중[5]과 김태근의 연구 [12]와는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적으로 여학생이 이성교제에 대해 경계하거나 혹은 축소시켜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남학생의 경우 이와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성교제를 경험할 기회를 모색하거나 또는 실제보다 과장되게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성 또는 성에 대한 관심과 행동의 성별에 따른 이중적인 잣대를 청소년들이 학습하였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사용한 이성교제 경험의 질문이 단순한 우정 관계보다는 낭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러한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을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이성교제를 경험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간 변화를 모두 통제하여 개인 내 변화에 따른 종속변인의 변화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고정효과모델의 결과에서도 재확인되었다(결과 미제시). 따라서 기존의 이성교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종합해서 해석해보면, 이 두 변인은 상호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이성교제 경험을 할 가능성이 더 많고, 이성교제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 이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상해줄 수 있는 이성과의 교제 기회가 더 적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족 특성 변인으로 살펴본 이성형제 유무, 부모의 애정적 양육 태도, 가구연간소득은 이성교제 여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및 이론들을 기초로 한 가정과 일치하지 않은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이성교제의 경험을 이성친구 존재 여부만을 살펴본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나 이성형제 유무는 이성교제 여부 보다는 만족도와 안정성과 같은 이성관계의 질적인 특성과 더 연관이 있을 수 있다[25][31]. 한편 부모의 애정적 양육 태도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이성교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향이 다른 영향력 서로 상쇄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가족 관련 특성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같은 매개 변인을 거쳐 이성교제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관련 특성이 청소년의 이성교제의 경험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성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아존중감이 이성교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넷째, 학교와 관련된 변인들 모두 이성교제 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미시체계임을 시사한다. 학교와 관련된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성별이 분리된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보다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여과망 이론의 가정과 청소년의 이성과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혼성 또래집단에서 시작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학업과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은 이성교제 여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즉 학업 성적이 좋거나 관심이 많은 학생일수록, 그리고 학교규칙을 잘 따르는 학생일수록 이성교제를 꺼려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는 학교를 비롯한 우리나라 사회가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다. 즉 서구화의 영향으로 이성교제가 과거에 비해 자유로워진 현대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는 학업 성적을 저하시키고 학교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청소년기 이성교제가 또래와의 관계가 확장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반적인 대인관계 기술이 이성교제 경험의 가능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 이성교제는 주요한 삶의 한 영역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 이성으로서의 매력 확인, 또래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이성 관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이성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기술의 발달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은 청소년기 발달뿐만 아니라 이후 이성과의 관계 형성 및 발달에 주요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경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성별에 따른 이성교제 유무의 차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성역할과 남성과 여성에 대해 이성교제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지니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건전한 이성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적인 성역할 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이성교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자아존중감을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게 하거나 혹은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과 함께 혼성 집단 활동이나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이성친구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면서 이성교제의 방법이나 예절 등을 익힐 수 있게 하여 이성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남녀공학 재학과 이성교제 가능성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므로 남학교 혹은 여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이성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이성 또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과 학교규칙 적응의 이성교제 여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이성교제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에서의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즉, 교사와 상담가들은 이성교제를 청소년의 학업을 방해하거나 비행을 초래하는 요인으로만 여겨 제한 또는 금지하기 보다는 이성과의 교제가 청소년기 발달에 주요한 과업임을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지도와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연령에 따른 이성교제 유무 변화와 개인, 가족, 학교 특성이 이성교제 유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성교제 경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상기에서 기술한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의 이성교제에 대한 질문은 선행연구에 비해 구체적이기는 하나 여전히 이성교제의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성인의 이성교제와 다르게 그 관계의 변화가 심하고, 유지 기간이 짧으며, 그 상대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8-9], 명확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모호한 이성교제에 대한 질문은 각 조사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이성교제 경험은 그 여부만을 포함하여 만족도나 안정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의 이성교제 경험 변화 양상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과 관련된 변인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이성교제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다른 심리·정서적 요인들의 매개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가족 관련 특성을 심리·정서적 변인들과 분석모형에 동시에 투입하여 이러한 경로의 설명력에 대해 살펴보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경로분석 등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과 관련된 요인들을 총체적이고 심도 있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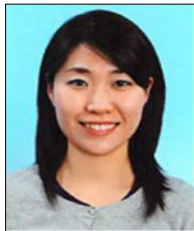
References

- [1] Arndorfer, C. L., E. A. Stormshak. "Same-sex versus Other-sex Best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Longitudinal Predictors of Antisocial Behavior Throughout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7, no. 9, pp. 1059-1070, 2010. DOI: <https://doi.org/10.1007/s10964-008-9311-x>
- [2] Lee, M. H. Survey on Sexual Opinion, Problem, and Intercourse among Adolescent in Urban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1993.
- [3] Han, S.C. Studies of Adolescence: Comprehension and Guidance of Adolescents(2ed). Hakjisa. 2008.
- [4] Cheung, S. K., C. McBride-Chang. "Correlates of Cross-sex Friendship Satisfaction in Hong Kong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31, no. 1, pp. 19-27. 2007. DOI: <https://doi.org/10.1177/0165025407073532>
- [5] Kim, W. J. "Comparison of Romantic Relationship by School Sex Composition",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 13, no. 3, pp. 59-109, 2004.
- [6] Song, M. S. Study of Romantic Relationship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h University. 2006.
- [7]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troduction to KCYPS [Internet]. Seoul(South Korea):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vailable From: <http://archive.nypi.re.kr> (accessed on March. 1. 2016) 2015.
- [8] Kim, J. M., J. J. Ho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arent Attachment and Romantic Attachment from Normal and Divorced Family",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5, no. 4, pp.151-172, 2008.
- [9] Ahn, W- B., J-G. Lee, Y-H., Kim. "The Comparison of Psycho-social Environment between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vol. 14, no. 2, pp. 53-66. 2002.
- [10] Lee, M. S, J. H. Kwak. "A Study on the Effects of Dating Experiences on Soci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Social Welfare Management Research*, vol. 31, no. 1, pp.131-152, 2016.
- [11] Baek, W-H.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Heterosexual Romantic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 Children and Parents, and their Conflic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2, pp. 29-54, 2011.
- [12] Kim, T. G.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pinion, Sexual Behavior, and Delinquency: Focused o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1998.
- [13] Lee, Y. S. A Study on Reality of Adolescents' Romantic Relationship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port. 1995.
- [14] Santrock, J. Adolescence. New York: McGraw-Hill. 2005.
- [15] Lee, C. L, K. S. Oh, O. B., Jung. "Pubertal Timing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vol. 4, no. 1, pp.89-102, 1991.
- [16] Kim, H-W. "The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of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5, no. 2, pp. 309-328, 2003.
- [17] Tak, M. K. A Study on the Conditions Intersexual Acquaintances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01.
- [18] Cho, S-H. Survey on Romantic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ungji University. 2003.
- [19] Chung, H-J, M-H Gong, Y-J Chun, H-S Chung. Families and Gender(2nd ed). Sinjung. 2009.
- [20] Park, M. J., I-S. Lee, E-K Shin, H. Joung, S-I. Cho. "The Timing of Sexual Maturation and Secular Trends of Menarchial Age in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vol. 49, no. 6, pp. 610-616, 2006. DOI: <https://doi.org/10.3345/kjp.2006.49.6.610>
- [21] Kim, Y.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the Parental Affective Rearing and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Mediation Self Determination Theor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0, no. 2, pp. 97-118, 2014.
- [22] Choe, I-S, Y. Won. "A Study on Selection Criteria of Korean Middl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in Romantic Rel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Development*, vol. 13, no. 2, pp. 131-143, 2000.
- [23] Lee, J-H. "Unrevealed Romantic Relations of Teenagers", *Adolescents' Loves: Unrevealed Romantic Relations of Teenagers*, pp. 75-86, 2013.
- [24] Moon, H-J, S-E Yang, H-G Kim, H-Y Chun, Y-I Kwon,

- H-S Cho. Family Relations, Changjisa. 2012.
- [25] Doughty, S. E., C. B. Lam, C. E. Stanik, S. M. McHale. "Links between Sibling Experiences and Romantic Competence from Adolescence Through You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vol. 44, no. 11, pp.2054 - 2066, 2015.
DOI: <https://doi.org/10.1007/s10964-014-0177-9>
- [26] Statistics Korea. "Statistics of School Enrollment"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accessed on Nov. 30.2016). 2016.
- [27] JoonAng Ilbo. Statement when two talked to each other in classroom. Kicked out of school with three warnings Available from <http://news.joins.com/article/19022200> (accessed on Nov. 30.2016). 2015.
- [28] Kwak, G. J., "Romantic Relation Culture of Adolescents", Adolescents' Loves: Unrevealed Romantic Relations of Teenagers. pp. 1-10, 2013.
- [29] Yu, S. E., "Factor Analysis of the Employment Impact of North Korean Defectors by a Panel Model",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pp. 5-35, 2012.
- [30] StataCorp. Stata Statistical Software: Release 13. College Station, TX: StataCorp LP, 2013.
- [31] Park, S-M., The Effects of Parent's Relationship and Attachment with Parents Perceived by Unmarried's on Satisfaction of Dating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2003.

정 유 진(Yu-Jin Jeong)

[정회원]



- 2000년 2월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아동학석사)
- 2009년 7월 : Oregon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h.D)
- 2013년 4월 ~ 현재 :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가족관계, 이민가족, 청소년발달